

대만에 있어서 자본축적, 계급구조와 민주주의: 구조적 요인의 인과적 연계를 중심으로

안승국

한국의국어대학교 BK21 지역연구전략개발팀 교수

대만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자본축적위기의 타개책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이전함에 따라 자본축적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자본축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계급구조도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같이 자본주의적 계급구조로 재편되었다. 즉, 노동집약적 산업화의 결과로 농민층의 수는 크게 감소되었으며 생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급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또한 서구에서와 같이 집약적 축적기에는 신중간계급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계급의 성장은 공통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는 범주로서의 집단이 출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만의 민주화과정에는 신중간계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만의 발전전략은 노동계급의 희생을 토대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역량은 규모에 비해 크지 않았던 반면 신중간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은 노동계급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노동계급이 임금이나 복지와 같은 경제적 쟁점에 비중을 두었던 반면 신중간계급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중시하였다. 이와 같이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에 혐오감을 갖고 있던 신중간계급의 정치적압력이 민주화를 촉발시켰던 것이다.

1. 서론

대만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시작되었다. 대만의 체제변동은 반대세력의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게 된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화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기점으로 한 민주화의 물결은 대만에까지 확산되었던 것이다. 대만은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주목할만한 자본축적을 성취해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대만의 민주화는 자본축적이 고도로 성취된 시점에 촉발되었다. 대만의 자본축적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축적체제와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초래하여 시민사회를 성장시킴으로써 민주화가 추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대만은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괄목할 만한 수출성장을 이룩하였다. 대만의 자본축적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축적위기에서 비롯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구조변동과 국가주도 산업화의 산물이었다.

대만이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황과 두 차례의 석유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제3세계 이전에 따른 신국체 분업체제의 수립과 이에 대응한 국가의 자본축적전략이 잘 맞아 떨어진 데 기인하는 것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자본축적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자본축적과 민주주의간의 단선적인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축적단계나 축적체제와 밀접한 상응성을 갖는다. 즉, 외연적 축적체제에서 내포적 축적체제로의 전환은 신중단계급이나 노동계급의 정치적 역량을 증대시켜 정치적 민주주의의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대만에 있어서 자본축적은 계급구조를 변화시켰다. 즉, 자본축적은 자본가계급 뿐만 아니라 신중단계급이나 노동계급과 같은 사회계급들을 형성시켰던 것이다. 이른바 ‘제3의 물결’이라는 최근의 민주화에서 주목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신중단계급이나 노동계급이 민주화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신중단계급과 노동계급은 지배세력에게 민주화를 강제할 수 있는 반대세력을 결성했다. 이러한 반대세력은 권위주의 체제에 압도되어 왔던 시민사회를 부활시켰으며, 시민들의 민주화요구를 결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들을 고려하면서 대만에서 자본축적전략이 계급구조의 형성과 민주화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대만의 자본축적과정을 탐색하고 이어서 계급구조의 형성과정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계급구조 변화의 민주화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논의한다.

II. 자본축적, 계급구조와 민주주의의 이론적 연계

정치변동에 관한 연구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구조를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행위자의 전략을 중심으로 가능성과 선택의 관점에서 변동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조적 접근은 변동과정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정치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거시적 차원에서 자본축적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즉,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포드주의(Fordism)¹⁾의 수립은 사회계급들에 대한 포용의 수준을 상승시키고 신중단계급이나 노동계급의 민주화요구를

1) 포드주의는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된다. 첫째 자동생산체제의 도입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본축적체제(regime of accumulation) 또는 생산체계(production system)이며, 둘째 조절양식(mode of regulation) 또는 대량소비의 조정체계로서 노동과정, 임금, 소비를 집약적 축적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촉발시킴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의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Lipietz, 1987: 148). 무어(Barington Moore Jr.)는 자본주의 발전은 도시 부르주아의 성장과 상업화된 지주계급의 형성이라는 자본주의적 계급구조의 재편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구조적 조건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Moore, 1966). 루체마이어 등(Dietrich Rueschemeyer)도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노동계급이나 도시중간계급의 계급역량이 증대되면서 이들이 집단적 압력을 행사하여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Rueschemeyer, 1992). 다시 말해서 자본축적은 계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민주화의 조건을 조성해준다는 것이다(Stephens, 1993: 438).

또한 자본축적의 심화단계에서 변화되는 계급구조는 민주화에 유리한 규범과 태도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민주주의에 중요한 중간계급의 규모를 증대시킨다(Lipset, 1981: 47-51; Diamond, 1993: 47). 자본축적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민주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기대를 상승시키고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정치적 동원과 정치참여를 촉발시키는 억압과 긴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Huntington, 1991: 69). 이러한 상황은 권위주의 정권을 교란시키며 정권으로 하여금 자유화나 억압의 양자택일에 놓이게 한다.

제3세계의 민주화에서 주목되는 점은 민주화의 추진을 신중간계급²⁾이나 노동계급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른바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이라는 최근의 민주화를 주도한 것은 신중간계급이었다. 대체로 제3세계 국가에 있어서 중간계급은 1960년대와 70년대까지 군부독재 정권을 지지하거나 묵인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중간계급은 민주주의의 강력한 옹호자가 되었다.³⁾ 이러한 점은 부분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유희조치에서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축적효과에 따른 역량 증대에 기인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신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중요성은 민주화 요구를 결집하여 지배세력에게 민주화를 강제할 수 있는 반대세력을 결성한다는 점이다. 반대세력의 출현은 정치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객관

2) 라이트(Wright, 1985)에 따르면 계급은 생산적 자산(productive assets)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에 의해 규정된다. 라이트는 생산적 자산을 생산수단, 조직적 자산, 기술 및 신용자산이라는 세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은 자본계급과 구중간계급이며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계급은 신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이다. 신중간계급은 노동계급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노동계급과는 달리 조직적 자산과 기술 및 신용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3) 1980년대의 민주화에서 신중간계급의 역할은 상당히 두드러진다. 아르헨티나에서 신중간 계급은 알폰신(Alfonso)정권의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필리핀에서는 전문·관리적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신중간계급이 마르코스(Marcos)정권에 대한 반대시위를 주도했다. 대만에서는 급속한 자본축적기에 등장한 신중간계급이 민주화의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한국에서도 전두환정권에 대한 시위의 주체는 학생과 전문·사무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신중간계급이었다.

적 구조만으로는 반대세력이 조직화되지 않는다. 반대세력의 조직화는 정치체제에 대한 사회계급들의 인식의 산물이다. 이러한 인식은 물질적인 조건에 대한 인식만을 의미하는 계급의식보다 훨씬 포괄적인 것이다. 계급의식을 토대로 한 묵시적인 비판이 존재하더라도 체제에 대한 반대는 분산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대세력은 권력, 정당성 그리고 정치체제에 관한 인식인 정치적 정체성(political identity)을 기반으로 조직화된다고 할 수 있다(Mainwaring, 1987: 143-148). 즉, 사회계급들은 정치적 정체성에 따라 정치세력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반대세력의 정치적 압력은 지배세력에 대한 대항이라는 지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계급과 신중간계급의 자율적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민주화연합의 결성은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국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은 자본축적 정도에 비해 노동계급의 수적 증대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들의 축적전략은 임금과 노동의 희생을 토대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역량은 규모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 이와는 달리 신중간계급은 노동계급보다 완만하게 증대되지만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은 노동계급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즉, 신중간계급의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위상과 교육수준은 비판능력을 증대시키고 정치적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민주화는 이익의 실현에서 배제된 계급들이 정치과정을 개방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면 특정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며 특정 계급의 이익이 배제될 가능성이 감소된다. 즉,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사회계급의 이익들이 공정하게 고려될 수 있는 경쟁적인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다.

대만의 민주화는 경제적 위기가 민주화를 촉발시킨 남미의 사례와는 달리 자본축적이 고도로 성취된 시점에서 촉발되었으며 자본축적은 계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민주화의 추진에 적합한 구조적 조건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III. 대만의 자본축적과정

대만의 자본축적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수출대체를 추진하기 전인 1950년대의 수입대체기로 한국과 대만에서는 제조업부문의 성장이 저조하여 여전히 1차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단계는 노동집약적인 소비재생산에 역점을 두었던 19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의 수출대체기로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만은 1960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에 12.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셋째 단계는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집약적 축적기로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화가 추진되었다.

<표 1> 대만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1960-70	1970-78	1979-82	1983-85	1986-88
12.4	9.6	2.8	7.8	10.4

자료: CEPD, 각 년도.

1. 수입대체의 자본축적

대만의 수입대체는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해 많은 지원을 받았다. 대만에서 1951년부터 1962년까지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13억 달러였는데, 동기간 미국이 제공한 원조⁴⁾는 11억 달러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원조는 대만의 수입대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대만에 있어서 수입대체는 외화지출의 억제와 국내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대만의 수입대체는 1950년대 후반 이후 경제원조의 규모가 대폭 감소되면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1950년대 말부터 내수시장의 위축, 산업경험과 관리의 결여, 무역수지 불균형과 같은 수입대체의 전형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대만의 성장은 둔화되어 1952년부터 1956년까지의 기간 중 GNP 성장률은 매년 하락하였다(Haggard, 1990: 90).

대만의 수입대체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성장과 민간부문의 확대에 기여했다. 대만에서 1952년부터 1958년까지의 제조업생산은 거의 두 배로 증대되었다. 국가는 선도 산업부문을 선정하여 민간기업에 이전하거나 국영기업을 운영하였다. 국영기업의 역할은 특히 두드러졌는데 대만의 국영기업은 1950년대 공업제품의 반 이상을 생산할 정도였다(Clark, 1987: 81).

2. 수출대체의 자본축적

대만은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초까지 수출대체전략을 통해 급속한 자본축적을 이룩하여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였다. 대만은 신국제분업체제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해 자본축적을 모색하였다. 노동집약적 상품의 생산과 수출을 용이하게 결합하기 위해 대만은 1966년 까오슝(高雄), 1969

4) 미국은 1949년 국민당정부에 대한 원조를 사실상 중단했으나 한국전쟁의 발발은 대만을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시켜 미국의 군사원조와 경제원조가 재개되었다. 경제원조와는 별도로 1946-75년의 기간동안 대만이 제공받은 군사원조총액은 약 44억 달러에 달했다(Halliday, 1980: 8).

년 타이쥙(臺中) 등에 수출가공구를 설치하였다(Myers, 1984: 518). 수출가공구란 국가가 항구도시 부근에 표준공장을 설립해 놓고 전력, 용수, 통신 등 각종 공공시설 및 항구와 창고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이다. 국가는 수출가공구에 공장 설립, 원료수입, 상품수출, 외화의 입출금 등을 간소화시켰으며 생산비절감, 세금감면, 그리고 저임금노동의 공급을 통해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생산자본을 도입하였다.

수출가공구가 설치되면서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54년 외국인투자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본격적인 투자는 1960년 투자장려조례가 제정된 이후 이루어졌다. 또한 1966년 수출가공구에 설립된 공장 수는 24개였으나 1970년에는 161개로 증가하였다(彭懷恩, 1987: 104). 대만은 수출가공구를 거점으로 원료나 반제품을 들여와서 저임금노동력에 의해 부가가치를 생산한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 외국투자에 의해 수출가공구에서 생산된 상품은 전량 수출될 것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간 경쟁의 과열화를 방지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만에서 외국의 직접투자는 수출가공구에 한정되었지만, 이러한 점은 다국적기업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70년대 다국적기업의 수출 및 판매비율은 50%를 초과하였다. 1960년 이전 다국적기업의 수출량은 생산량의 18%에 불과했지만 1967년에서 1971년의 기간에는 75%로 증가하였다. 대만에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생산자본은 기술개발과 판매촉진에 기여했다. 결국,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생산자본과 저임금노동력의 결합은 대만의 자본축적을 성공으로 귀결시켰던 것이다.

또한 대만에 있어서 수출대체의 성공은 지정학적 요인과의 밀접하게 관련된다. 미국은 2차대전 종전 이후 대소(對蘇) 봉쇄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대만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었다. 즉, 미국과 대만간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정치적·안보적인 성격이 강했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만에 막대한 경제원조⁵⁾를 제공해 왔는데, 1950년대 후반 달러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원조를 삭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Koo, 1987: 167-168). 미국은 1958년부터 원조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차관기금(Development Loan Fund)과 민간개발국(Office of Private Development)을 설립하였다(Gold, 1986: 77). 이후로 미국은 원조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대신 대만의 수출대체를 장려하였으며 자유무역과 투자정책의 도입을 촉진하였다.

5) 대만이 1951년부터 1965년 7월 원조가 종결될 때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총액(군사원조 제외)은 15억 달러로 년평균 1억 달러에 이르렀다. 1950년부터 1960년까지의 기간동안 미국의 원조는 대만 총수입의 40%를 차지하였고, 총투자액의 38%, 국민총생산의 6%를 점유하였다(林鐘雄, 1987: 158).

3. 중화학공업화의 자본축적

대만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집약적 축적을 모색하였다. 노동집약적인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출대체는 1970년대 초 선진국들이 구조적 불황에 접어들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1973년의 1차 석유위기에 따른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축적 위기는 신흥공업국들의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원유가 인상과 세계적 차원의 인플레이션에 의해 대만은 1974년부터 75년까지의 기간동안 심각한 경상수지적자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채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더구나 실질임금이 크게 상승하여 저임금이 더 이상 비교우위로 작용할 수 없게 되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기반은 상당히 침식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표 2> 대만의 실질임금 성장, 1962-1985

1962	1965	1970	1975	1980	1985
---	72.9	100.0	124.2	192.1	252.8

자료: Haggard(1990). 1970 = 100

중화학공업화는 철강과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중간재, 기계나 자동차와 같은 자본재의 수입대체와 수출대체를 동시에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출대체기의 선도산업부문이었던 섬유산업의 비중이 감소되고 전자 및 전기·기계부문의 비중이 증대되었다. 중화학공업화는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에서는 국영기업이 중화학 공업부문을, 민간기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부문을 담당하는 전략이 채택되었다. 대만에서는 중화학공업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화학공업화는 국영기업이 담당하였다(Haggard, 1990: 141). 대만은 1973년부터 제철, 조선, 석유화학을 10개 항목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하였다(Amsden, 1985: 93). 이에 따라 1965년 총제조업생산중 49.8%였던 중화학공업 비율은 1975년 53.3%로 증대되었다(DGBAS, 1981). 특히 화학공업과 기계공업은 1961년 제조업 부가가치 중 24%였는데 1974년에는 50%까지 상승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Wade, 1990: 88). 국영기업이 담당한 제철산업은 1974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생산의 대부분은 수출대체가 아니라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하였다. 조선산업도 국영기업이 담당하여 1974년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중화학공업화의 특징은 철도, 항만, 공항, 도로와 같은 하부구조(infrastructure)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는 또한 1950년대의 수입대체와는 달리 새로운 수입대체가 추진되었다. 대만은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의존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수출을 통해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출상품의 국내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의 원자재 및 부품산업을 발전시켜야 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수입대체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국내생산이 증대되는 데 따른 것이었다(안승국, 1997: 116).

1970년대 초까지 대만의 수출신장은 상당히 급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간재와 자본재의 국내공급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수출이 약간 둔화되고 중간재와 자본재의 국내생산이 확대되면서 수입대체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 대만은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만은 1976년-81년간의 6개년 계획에 입각해 1970년대에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할 비영리 전문조직을 창설하고 민간확대를 지원하였으며 1980년에는 신주(新竹)에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Haggard, 1990: 142). 이로써 70년대 초까지의 저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한 본원적 테일러화에서 벗어나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유사한 포드주의 체제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대만의 자본축적 체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부 포드주의를 포괄한 주변부 포드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IV. 자본축적과 계급구조의 변화

대만에 있어서의 급속한 자본축적은 계급구조⁶⁾를 크게 변화시켰다. 즉, 계급구조에서 전통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농업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다른 계급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는 자본주의적 계급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계급구조의 변화는 자본축적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대체로 수출대체에 중점을 두었던 1960년대 초부터 7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에는 노동계급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집약적 축적 단계에서는 신중관계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계급분화의 기간이 극히 짧았기 때문에 서구에서와 같이 명백한 계급의식의 확립은 수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계급분화는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과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6) 대만의 계급구조에 관해서는 생산수단을 기준으로 한 Gates(1979) 모형(자본가계급; 썬더 부르주아; 신중관계급; 노동계급; 룩펜 프롤레타리아) 참조. 본 논문에서는 계급구조를 자본계급;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종사자로 구성되는 신중관계급; 생산자영업자, 판매자영업자, 서비스자영업자로 구성되는 구중관계급; 생산노동자, 판매노동자, 서비스노동자로 구성되는 노동계급과 같이 직업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입각해서 논의한다. 또한 중관계급은 구중관계급과 신중관계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의미한다.

1. 자본축적과 노동계급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만의 수입대체기에는 미국의 경제원조에 대한 의존이 상당히 심하였다. 대만의 수입대체산업은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했으며 그나마 1950년대 후반 미국의 경제원조가 삭감되면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조업부문의 성장은 매우 저조하여 여전히 1차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차산업 취업인구는 1952년 16.9%에 지나지 않았다(CEPD, 1989).

대만에서 노동계급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수출대체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특히 중심부 포드주의의 생산자본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유입되면서 저임금의 노동력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생산직 노동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6년에 비해 1970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생산직 노동자 수의 증가는 수출대체기에 대만의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수출대체는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중심부 포드주의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대만의 노동계급 수는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던 반면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노동계급 수는 감소되었다. 대만에서 생산직 노동자 수의 증가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만에서는 국가의 산업분산정책으로 농촌지역에도 제조업 공장이 설립되어 농업인구도 상품생산의 역할을 담당했다(Gold, 1986: 89-90). 산업구성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제조업 노동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5년 150만 명으로 총 고용인구 중 29%에 이르렀다(Deyo, 1987).

이와 같이 풍부한 노동력은 대만의 노동집약적 상품수출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계급의 특징은 저임금과 미숙련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 시기의 산업노동구성에서 여성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964년 34%였던 여성비율은 1973년 43%로 상승하였다(Deyo, 1989: 181). 여성노동력은 저임금고용이 용이했고 순응성이 컸기 때문에 본원적 테일러화를 가능하게 했다.

<표 3> 대만의 노동계급 구성비

년도	1956	1970	1975	1980	1985
생산직	12.8	20.4	26.6	29.3	33.7
판매직	1.3	1.5	1.6	1.8	2.8
서비스	3.9	3.5	3.5	4.4	4.5
전 체	18.0	25.4	31.7	35.5	41.0

자료: CEPD, 각 년도.

집약적 축적기에는 수출대체기의 공업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산업구조는 이전의 소비재중심에서 중간재나 자본재생산에 역점을 두는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인구비중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섬유공업의 비율은 1960년과 1973년에 18.4%와 19%에서 1986년 13.1%로 하락하였다. 이와는 달리 전자 및 기계공업의 비율은 1960년에는 1.2%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3년에 12.9%, 1985년에는 15.9%로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Deyo, 1989: 169).

이러한 변화는 노동계급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수출대체기의 노동계급이 저임금, 미숙련, 여성의 높은 비율을 특징으로 했다면,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고속련, 비교적 높은 임금, 남성의 비율증대를 특징으로 한다. 실질임금은 1970년을 기준으로 1984년 2배정도 상승하였지만 임금수준은 여전히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대만의 시간당 임금은 다른 신흥공업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⁷⁾

대만에서는 자본축적의 현 단계까지 노동계급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결과가 노동계급의 질적 역량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노동계급의 성장은 조직화와 연계될 때 가능할 수 있다. 대만에서는 서구나 남미와는 달리 노동계급이 단기간에 급격히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는 일찍부터 진행되어 본토에 설립되어 있던 자유중국 노동총연맹이 1950년에 재결성되었다(김영래, 1989: 216).

7) 1980년 기준으로 대만의 시간당 임금은 1.25달러였던 반면 홍콩은 1.51달러, 브라질은 1.73달러, 멕시코는 2.76달러였다(Deyo, 1987: 197).

<표 4> 대만의 노동계급 조직화

	노조원 수	조직률
1966	354	20
1970	488	21
1975	765	24
1980	1,103	26
1983	1,304	29
1985	1,549	33
1987	2,044	38
1989	2,420	44
1990	2,757	49

자료: ILO, 각 년도.

이러한 노조의 조직화는 대부분 국가의 노동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진략하였다. 대만에서 1960년대 이후 국가는 전국적 연합조직이나 노동법을 통해 노동계급을 통제했다. 그러나 기업에 의해 노조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보다 간접적이었다(Deyo, 1987: 202). 노동계급에 대한 통제는 수출대체를 성공으로 귀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 노동계급의 조직화가 노동운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국가의 통제수단이었고 간헐적으로 발생된 노동분쟁이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시기의 노동조합의 결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1980년대 중반이후의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정치적·경제적 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표 4>를 보면 대만에서 노동계급의 조직화는 수출대체가 시작된 1960년대 초반 이래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지속적인 통제로 인해 1980년대 중반까지 노동계급의 요구가 심각하게 표출되지 않았다. 대만은 수출대체를 위해 저임금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1960년대 초부터 70년대 초까지 억압적인 노동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본격적인 추진도 노동계급에 대한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⁸⁾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

8) 노동계급에 대한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유형은 크게 조합주의적 통제와 시장기제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조합주의적 통제유형의 특징은 집단협상이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며 국가에 의해 협상과정이 통제된다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시장기제적 통제유형에서 집단협상은 완전히 분권화되지만 노조간의 긴장과 경쟁이 조장되고 노조지도부에 대

었다.

2. 자본축적과 신중단계급

대만에서 자본축적이 계급구조에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중의 하나는 신중단계급을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신중단계급은 전문·기술직, 사무직,⁹⁾ 관리직 종사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직업군은 신중단계급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요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신중단계급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신중단계급은 자본축적의 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며, 특히 집약적 축적기에는 고용인구중 20%를 차지하였다.

<표 5> 대만의 신중단계급 구성비

	1964	1973	1986
전문기술직	14.2	18.1	21.0
행정관리직	4.1	5.0	6.3
사무직	2.4	2.6	0.9
전체	7.7	10.5	13.8

자료: CEPD, 각 년도.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만에서 신중단계급의 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신중단계급의 비율은 1964년 14.2%에서 1986년 21.0%로 1.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신중단계급의 구성비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의 신중단계급 구성비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낮은 이유는 자본축적과정과 밀접히 연관된다. 첫째, 대만은 중심부 포드주의의 축적위기에 따른 생산의 국제화와 관련되어 생산기능을 담당하고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연구 및 관리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중단계급의 비율이 상승했다. 둘째, 대만의 자본축적은 급격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중단계급이 형성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았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중단계급의 구성비가 명백한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국의 자본축적이 집약적 성격으로 전환한 것에

한 탄압이 가해진다(Valenzuela, 1989: 448).

9) 일부 연구에서 사무직 종사자를 노동계급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사무직의 기능을 간과하는 것이다. 사무는 자본이 위임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노동계급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기인된다. 즉, 대만에서는 주변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선진자본주의와 유사한 포드주의 체제가 수립되면서 연구 및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신중관계급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노동집약적 상품생산에 주력했기 때문에 노동계급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1970년대부터는 신중관계급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화의 추진에 따라 전문기술직 종사자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6> 대만 신중관계급의 공공 및 민간 부문 비율

	1956	1970	1975	1980
공공부문	74	69	54	51
민간부문	26	31	46	49

자료: CEPD, 각 년도.

대만과 같은 주변부 포드주의체제에서 국가는 신중관계급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가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제도적인 확장을 추진하였으며 신중관계급은 국가기구에서 역할을 담당하였다(Johnson, 1985: 15). 즉, 주변부 포드주의체제에서는 국내자본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는 기업가적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자본축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기술자 그리고 관리자들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자본축적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계급적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신중관계급에게 부여했던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신중관계급의 위상은 대립적인 사회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놓여있다. 자본축적은 신중관계급의 이러한 역할을 증대시켰다. 특히 집약적 축적단계에서 국가나 자본은 직장과 임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와 자본에 대한 신중관계급의 의존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신중관계급은 고위수준에서 민간기업이나 국영기업에서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하위수준에서는 감독과 조정기능을 수행한다(Abercrombie & Urry, 1983: 16).

대만에서는 집약적 축적기에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의 자본축적과정에 대한 개입이 크게 증대되었다. <표 6>을 보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공부문의 신중관계급 구성비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대만에서 공공부문의 신중관계급은 50%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감소추세는 명백하게 나타났다. 대만에서도 중화학공업화는 국영기업중심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

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한 결과 민간부문의 비율이 크게 신장하였다. 1970년부터 1975년까지는 민간부문의 비율이 크게 증대되었고 1975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V. 계급구조와 민주주의

1. 노동계급과 민주주의

대만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노동계급의 요구가 심각하게 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노동계급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에 기인된다. 한국과 대만은 수출대체를 위해 저임금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억압적인 노동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본격적인 추진도 노동계급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표 7> 대만의 노사분규 발생건수

1970	1975	1980	1983	1985	1987	1989
...	458	626	921	1,443	1,606	1,943

자료: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Geneva: International Labor Office, 각 년도.

대만에서 1961년의 노사분규는 30건에 불과했으나 <표 7>과 같이 1980년대에 들어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노동계급의 산발적인 동원이 시도되었다. 노동운동은 단체교섭권의 보장, 노동조건의 개선, 사회보장, 퇴직금지급, 직업안정, 노동법개정을 제기하였으며 1987년 4월에는 학자와 입법위원 등 39명이 노동자의 12개 기본권을 쟁점화하였다(Tien, 1989: 126). 전국규모의 노동운동은 연말상여금문제가 쟁점이 된 1987년 말부터 분출되기 시작했다. 노동운동은 경제적 쟁점뿐만 아니라 자율적 노조의 설립, 불공정한 관행의 제거, 정부의 노동정책 수정을 목표로 지배세력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국민당정권은 입법원에 노동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대응은 효과적이지 못했다. 노조지도자들은 전투적이고 독립적인 신규노조를 설립했으며 1987년부터 88년 동안에는 노동조합총연맹의 대표권에 도전을 제기하였다. 신규노조의 최대 관심사는 노동법개정이었다. 지금까지 노동법은 노동자의 파업권과 단체교섭권을 제약하고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관행을 정당화시켜 왔다. 이와 같은 노동운동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계엄해제 투쟁국면과 직선제 투쟁국면에서 노동계급의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과 대만의 노동운동이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행국면에 있어서 노동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지만 권위주의의 통제로 인해 리더쉽과 지지의 토대가 침식된 것에 기인된다.

2. 신중간계급과 민주주의

신중간계급의 정치성향은 독자적으로 정립되기 어려우며, 직종과 직위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신중간계급은 권위주의 체제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억압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노동계급과는 달리 경제적 쟁점보다는 시민적 자유나 정치적 자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신중간계급은 동질적인 범주가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확고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신중간계급의 정치적 정체성은 정치적 국면에 따라 변화되었던 것이다.

대만에서 1980년대에 발생한 정치적 저항의 특징은 이전에 비해 보다 조직화되어있고 의식적인 정치전략을 구사하며 근본적인 정치적 쟁점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만의 반대세력은 1987년 중반까지 계엄해제 투쟁을 그 이후로는 총통직선제 투쟁을 전개하였다.

<표 8> 대만의 대중시위 발생건수

1980	1983	1985	1987	1989
0	143	182	675	2,314

자료: Huang, Teh-fu. "Analysis of Collective Political Protest." Paper delivered at the Conference on Collective Protest. Taipei, November 6(1988).; New York Times Index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학생집단들은 1980년대 초에서 중반까지 이어지는 민주화투쟁의 국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신중간계급 출신의 정치인집단인 당외(黨外)였다. 반대세력은 지배세력의 총통간선추진에 반대하여 중정기념관 앞에서 천안문사태를 방불케하는 대규모의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지배세력의 부분개헌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이른바 4·17시위를 주도하고 전면개헌 또는 신헌법제정을 요구하였다(안승국, 2001: 294). 대만에서 신중간계급은 네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정치적 반대에 상당히 중요했다. 첫째, 반대세력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신중간계급출신이었다. 둘째, 반대세력의 활동은 주로 도시의 신중간계급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셋째, 신중간계급은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서구적인 다원주의에 강한 공감을 갖고 있었다. 넷째, 신중간계급의 다수는 대만출신이다 (Lu, 1992: 122-123).

대만에서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중간계급은 정치적 변화에 수동적이며 권위주의 체제의 충실한 지지자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신중간계급은 체제유지에 비판적이며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저항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신중간계급은 정치적 저항뿐만 아니라 환경, 여성, 반핵, 복지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도 시위를 전개함으로써 체제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대만에서 민주화에 관한 타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중간계급이 주도하는 반대세력의 목표가 국민당내 개혁파의 입장과 상이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즉, 지배세력과 반대세력간의 실질적인 긴장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과 국민당 개혁파간의 이러한 친화성은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Cheng & Haggard, 1992: 4).

VI. 결 론

대만에서 자본축적이 민주화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연적 축적체제에서 내포적 축적체제인 포드주의로의 전환은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조성하였다. 즉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계급들에 대한 포용의 수준을 상승시켰고 외형상 억압보다는 동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의 수립에 기여하였다. 둘째, 자본축적은 계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계급간 힘의 균형을 재편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급역량을 증진시켰다. 셋째, 민주화과정에서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자본축적의 결과 성장한 신중간계급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거시적 차원에서 대만의 민주화는 정치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선택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과의 연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만에서 비록 주변적이기는 하지만 포드주의 축적체제가 수립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체로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신중간계급이나 노동계급의 민주화요구를 수용하면서 독재로부터 탈피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만에서 권위주의 정권은 반대세력과의 타협을 통해서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변부 포드주의의 한계는 중심부 포드주의와 달리 사회계급에 대한 포용이 중간계급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과도 노동계급에까지 확대되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민주화타협 이후 권위주의체제를 대체한 것은 제한적 민주주의였으며 노동계급에 대한 통제도 지속되었던 것이다.

대만의 민주화가 실질적으로 정치엘리트간의 타협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일반대중들의 저항은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기반을 동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반대세력은 1970년대나 80년대 초에 비해 80년대 중반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직화되었다. 대만의 경우 지배세력은 정치적 저항에 직면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세력의 도전은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대중의 정치적 저항이 체제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는 정치엘리트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민주화의 진행속도는 정권경쟁과정에서 정치엘리트간의 타협과 대립양상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또한 민주화 타협직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정권과의 연속선상에서 이행과정이 매우 완만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대만의 민주주의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만의 민주주의는 이행단계를 넘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대만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역행될 수 없는 하나의 당위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 민주주의체제를 공고화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 김영래. 1989. 「아시아 신흥공업사회의 이익대표체계연구 : 자본가 단체와 노동자 단체를 중심으로」. 이수훈 외. 『동아시아 발전의 정치경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안승국. 1997. 「자본축적의 정치경제: 세계경제의 구조변동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축적사례」. 『국제정치논총』 제36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 안승국. 2001. 「대만의 민주화과정 분석: 정치행위자의 전략과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2호. 한국정치학회.
- 林鐘雄. 1987. 『臺灣 經濟發展 四十年』. 김철수 외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彭懷恩. 1987. 『臺灣 政治發展 四十年』. 김철수 외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Abercrombie, N. and John Urry. 1983. *Capital, Labor, and the Middle Clas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Amsden, Alice H. 1985. "The State and Taiwan's Economic Development." in Peter Evans, Dietrich Rueschemeyer & Theda Skocpol(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ng, Tun-jen and Stephan Haggard. 1992. "Regime Transformation in Taiwan: Theoret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in Tun-jen cheng and Stephan Haggard(eds). *Political Change in Taiwan*. Boulder: Lynne Rienner.
- Clark, Cal. 1987. "The Consequences of State Entrepreneurship: A Taiwan Case Study." *Pacific Focus*. Vol. II. No. 2.
- Deyo, Frederic C. 1987. "State and Labor: Modes of Political Exclusion in East Asian Development." in Frederic C. Deyo(e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Deyo, Frederic C. 1989. *Beneath the Miracle: Labor Subordination in the New Asian Industri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iamond, Larry. 1993. "The Globalization of Democracy." in Robert O. Slater et al. *Global Transformation and the Third World*. Boulder: Lynne Rienner.
- Gates, D. 1979. "Dependency and the Part-time Proletariat in Taiwan." *Modern China*. Vol. 5. No. 3.
- Gold, Thomas B. 1986. *State and Society in the Taiwan Miracle*. Armonk: M.E. Sharpe.
- Haggard, Stephan. 1990.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aggard, Stephan, Richard N. Cooper and Chung-in Moon. 1993. "Policy Reform in Korea." in Robert H. Bates and Anne O. Krueger. (ed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actions in Economic Policy Reform: Evidence From Eight Countries*. London: Blackwell.
- Halliday, John. 1980. "Capitalism and Socialism in East Asia." *New Left Review*. No. 124.
- Huang, Teh-fu. 1988. "Analysis of Collective Political Protest." Paper delivered at the Conference on Collective Protest. Taipei, November 6.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Johnson, Dale L. 1985. "Class and Social Development: Towards a Comparative and Historical Social Science." in Dale L. Johnson(ed). *Middle Class in Dependent Countries*. Ber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Koo, Hagen. 1987. "The Interplay of State, Social Class, and World System in East Asian Development: The Cases of South Korea and Taiwan." in Frederic C. Deyo(e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Lipietz, Alain. 1987. *Mirage and Miracles: the Crisis of Global Fordism*. London: Verso. 김종한 외 옮김. 『기적과 환상』. 서울: 한울.
- Lipset, Seymour M. 1981.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 of politic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u, Alexander Ya-li. 1992. "Political Opposition in Taiwan: The Development of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in Tun-jen Cheng and Stephan Haggard(ed). *Political Change in Taiwan*. Boulder: Lynne Rienner.
- Mainwaring, Scott. 1987. "Urban Popular Movements, Identity, and Democratization in Brazil."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0. No. 2.
- Moore, Barington Jr. 1966. *The Social Or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 Myers, Ramond H. 1984.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on Taiwan." *The China Quarterly*. No. 99.
- Rueschemeyer, Dietrich, Evelyne H. Stephens, and John D. Stephens. 1992.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Stephens, John D. 1993.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Empirical Research on the Social Orgins of Democracy." in D. Copp, J. Hampton,

- and J. Roemer(eds). *The Idea of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en, Hung-mao. 1989. "The Transformation of an Authoritarian Party State: Taiwan's Developmental Experience." *Issues & Studies*, Vol. 25. No. 7.
- Valenzuela, Samuel J. 1989. "Labor Movements in transition to democracy: A framework for analysis." *Comparative Politics*. Vol. 21. No. 4.
- Wade, Robert.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ber, Max. 1964.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New York: Free Press.
- Wright, Erik Olin. 1985. *Classes*. London: Verso.
- CEPD(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 DGBAS(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Geneva: International Labor Office.
- New York Times Index.

Capital Accumulation, Class Structure, and Democracy in Taiwan: Focusing on the causal links between structural factors

Seung-Gook Ahn

*Professor, Research Team for Developing Methodological Strategies in
Comparative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aiwan's capital accumulation was due to the correspondence between structural changes in world economy and industrial policy. In other words, the capital accumulation was achieved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ization of productive capital to break through the crisis of capital accumulations in advanced capitalist states.

In Taiwan, the capital accumulation constructed the class structure fitted to democratization by growing the new middle class and working class. The configuration of the class structure changed according to the stages of accumulation. The working class increased in the period of export substitution and the augment of the new middle class was remarkable in the period of intensive accumulation.

Fordism characterized by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made the level of inclusion on the social class go up and contributed to construct a political system on the consensus. In this structure, Taiwan's democratic transition was led by negotiation between the ruling forces and the opposition forces.

안승국. 한국외국어대 BK21 지역연구전략개발팀 교수.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Tel: (02)961-4374(O). E-mail: sgahn@hufs.ac.kr